



### '중외공원 시대' 여는 광주시립미술관

전문성을 높여라

## 정체성 확립·전문인력 양성 시급

지난 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15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공립미술관이지만 미술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은 물론 뚜렷한 차별화 전략이 없는 공공 기관으로 꼽힌다.

미술관이 현대미술, 혹은 근대미술 등을 조명할 것인 지 등 미래를 좌우할 뚜렷한 운영지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광주시립미술관은 2천738점이라는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술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미술관이 표방하는 지향점에 맞춰 작품을 수집해야 하지만, 대부분 수집예산을 일관성 없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4명인 학예연구사를 대폭 확충하고 인력을 정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의 연구·기획을 바탕으로 미술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컬렉션의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시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예연구인력들이 해외 선진미술관의 전시·운영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직원 재교육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의 인력난은 시설과 전시는 물론 운영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는 중외공원 시대를 맞아도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 이번에도 새로 개설한 '어린이 미술관'의 경우 자체 운영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지역 작가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도 대전이나 타 시도의 경우 전문 인력이 배

### 학예연구사 대폭 확충... "직원들도 환골탈태해야"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개관 기념전인 '광주미술현장전'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미술현장전'은 오는 12월2일까지 열린다. /위탁기자 jrw@kwangju.co.kr

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전시기획을 담당해야 할 인력이 결핍,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문화수도 핵심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립미술관이 광주시 산하기관이지만 직원들이 거쳐가는 소규모 '출장소'로 인식돼 정년 앞둔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타 부서 전직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만 해도 미술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이 정년을 맞았고 중요부서의 직원들이 무더기 광주시로 전출돼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 게 사실이다.

최영훈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 시대를 맞아 전시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직원들도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참신한 기획과 전시를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교우에이 디자인 작 '240개의 풍선 램프'

## 동심을 부풀렸던 풍선

'240개의 풍선 램프'는 어린 시절 동심을 부풀렸던 풍선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제작한 램프 다발이다. 실제로 고무풍선 안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넣은 이 제품은 기존 형광등 보다 수명이 길고 소비전력이 적은 것이 장점.

교우에이 디자인은 지난 2006년 코우이치 오카모토가 설립한 조명 디자인 회사로 디자인의 모티프를 유년시절에서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린시절 좋아했던 놀이감, 스타일, 색과 소리 등 잊혀진 기억들을 작품에 주로 반영한다.

교우에이 디자인은 기발하고 세련된 기법을 채용하는 등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지만 부담없는 가격에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



는 디자인 회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현대인의 삶에 '여백'과 '침표'

### 이철수 목판화전

31일까지 무각사문화관

국내 대표적인 목판화가 이철수씨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은 담은 작품을 들고 광주를 찾았다.

이철수씨가 '새꽃·새잎으로'를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무각사 경내 무각사문화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80년대 민중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여백'과 '침표'를 남기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절집에서 개최하는 작품전이나 만큼 불교적인 색채가 반영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성철 스님의 열반 광경을 목판에 옮긴 '만장' '벽안록'



'새꽃 새잎'

'반가사유상' 등이 대표적이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근작 31점을 전시하는 공간에는 민중문화가로서 원형질이 남아있는 작품도 등장한다. '앞서 가면서'는 지난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숨진 인사 8명의 삶을

기리기 위한 작품. 이씨는 '사법적 살인'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유족들을 돕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 판매했으나 전시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062-383-010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내년 상반기 대관 예약

### 인터넷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22일 100회

18~31일까지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예술회관에 대한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을 위한 사용예약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대극장(1천732석)과 소극장(509석)으로, 대관 기간은 1월 22일~6월30일이다.

신청 대상은 ▲순수예술 및 정통 예술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작품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

바질할 수 있는 공연 작품 등이다.

정치성·종교성이 짙은 공연, 사설학원 등 특정단체나 대학생 이하가 주가 되는 공연과 행사는 신청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는 대관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문예회관 공연 사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회관 홈페이지(http://art.gcity.net)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문의 062-510-9252.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국내 유일의 인터넷 문학라디오 방송 '문장의 소리'가 오는 22일로 100회를 맞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사업추진위(위원장 김치수)가 운영 중인 문화포털사이트 사이버문학광장(www.munjang.or.kr)에서 서비스하는 이 방송은 지난 2005년 5월30일 첫 방송을 시작, 매주 월요일 네티즌에게 문학이야기를 전해왔다. 김선우(시인), 한 강(소설가), 이문재(시인) 씨를 거쳐 현재 젊은 소설가 이기호 씨가 진행을 맡고 있다.

그동안 신달자, 박범신씨 등 원로 문인에서 시인 황병승, 소설가 한유주 등 신인까지 170여명이 초대돼, 300여편의 문학 작품을 소개·낭독했다. 사회학자 박노자, 철학자 김용규, 무용가 안은미 화자 및 예술가 40여명도 프로그램을 빛냈다.

'문장의 소리'는 100회를 맞아 시인 안현미, 소설가 권해영, 문학평론가 복도훈 등을 초청해 16일 오후 7시 서울 여성노동자회관에서 공개녹음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760-469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피아니스트 강충모 독주회

1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피아니스트 강충모(47·한국예술종합학교·사진) 교수 독주회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콩쿠르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 교수가 광주에서 독주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

이다.

연주회 프로그램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장조, 스크랴빈의 '소나타 5번 작품번호 53',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작품번호 58' 등이다.

서울음대 졸업후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 등에서 수학한 강 교수는 피아니 음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교와 함께 교수로 초



빙과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음반으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이 있다. 티켓 가격 4만원, 5만원. 문의 02-585-6026. /김미은기자 ekim@kwangju.co.kr

영화라디오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행복 (15세) 최고급편  
2관 비커밍 제인 (12세)  
3관 내니 다이어리 (12세)  
4관 거침없이 썬라 슛업 (18세)  
5관 브레이브원 (15세)  
6관 본업데이트 (12세)/스페이스 뷰티 (18세)  
7관 카핑 베토벤 (12세)  
8관 사랑 (15세)  
9관 러시아워3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루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품 요금 부과 \*우유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빛고을·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연인과 가족의 오붓한 문화공간

내가 엔터시네마를 찾는 이유...  
저의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인데 영화관 관람은...  
다만 영화관에 가 보았지만 시설도 좋고...  
또한 엔터시네마 내부전체가 너무 깨끗해서 좋았으며...  
이렇게 청결한 사적 공간으로 고부 3박자를 갖춘 엔터시네마가 있어서 저는 늘 영화를 보러 다니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 직장인 김민지

\*주최자가 원하는 관람 http://www.entr-cinema.co.kr\*

원도시영영화관 \*예매:www.joyco.com/1588-7941

###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편)

1관 권순문어사 남치사건 (15세)  
2관 내니 다이어리 (12세)/이드레날린24 (18세)  
3관 상사부일체 (15세)/본업데이트 (12세)  
4관 행복 (15세)  
5관 거침없이 썬라 슛업 (18세)  
6관 사랑 (15세)  
7관 브레이브원 (15세)  
8관 카핑 베토벤 (12세)  
9관 비커밍 제인 (12세)  
10관 러시아워3 (15세)

\*호남 최대 주차장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라츠해움(100원) \*점심 상영중 \*성원전역 편입 \*11월 22일~29일

색깔있는 영화선박 \*www.cinuso.co.kr/1544-0070

###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1관 거침없이 썬라 슛업 (18세)  
2관 브레이브원 (15세)  
3관 카핑 베토벤 (12세)  
4관 사랑 (15세)/내니 다이어리 (12세)  
5관 러시아워 3 (15세)  
6관 행복 (15세)  
7관 비커밍 제인 (12세)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독자 사무나(모텔사-캐비넷)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www.mo12.co.kr/1588-9101

### 무등극장

충장로 1가 ☎232-9106

1관 거침없이 썬라 (18세)  
2관 카핑베토벤 (12세)  
3관 행복 (15세)  
4관 브레이브원 (15세)  
5관 사랑 (15세)  
6관 비커밍제인 (12세)  
7관이드레날린 (18세)  
8관다이어리 (12세)  
9관러시아워3 (15세)

\*리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멤버십 혜택 \*편의점 이용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행복 (15세)  
2관 러시아워3 (15세)  
3관 브레이브원 (15세)  
4관 사랑 (15세)  
5관 내니다이어리 (12세)  
6관 상사부일체 (15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